

곤도보 - 방직시설의 재배치 및 규모의 조정으로

공장경영체제 새로 짜 경쟁력 강화

곤도보는 금년(2002년) 3월부터 8월까지 다마지마(玉島) 방직공장에서 4만 추의 방직 시설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곤도보·텍스텐드로 옮겨 설치하기로 하였다. 곤도보·텍스텐드는 1996년에 조업을 시작한 자(子)회사로서 모(母)회사로부터의 4만추와 새로 추가되는 신예시설까지 합쳐서 8만 3천추 규모로 커진다. 따라서 일본내의 곤도보공장은 현재의 41만추에서 37만추로 줄게 된다.

또한 쓰시마(津島) 직포공장은 완전히 문을 닫고, 이 공장의 직기 중 성능이 좋고 특수한 190인치 광폭직기와 두 개의 북으로 두 종류의 위사로 제직할 수 있는 쌍북직기만을 사쿠라이정(櫻井)공장으로 옮겨 설치하면서 성능이나 기능이 뒤떨어지는 노후직기들을 폐기함으로써 직기 보유대수는 430대에서 150대 규모로 약 1/3로 줄게 된다.

이와 같은 생산시설의 재배치 및 시설규모의 조정으로 방직분야는 인건비가 보다 저렴하며, 그동안 가동상태도 안정되어 가는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경영비중을 일부 옮기고, 제직 시설은 특수직기만을 살려 생산 원가의 절감 및 차별화를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계획으로 보인다.